

마르코 복음서 7장

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(마태 15,1-20)

- 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,
- 2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,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.
- 3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,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,
- 4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.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,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.
- 5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. “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,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?”
-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.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.
'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
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.
- 7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
나를 헛되이 섬긴다.'
- 8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.”
- 9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.
- 10 모세는 '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.' 그리고 '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'고 말하였다.
- 11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'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,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.'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.
- 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.
- 13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.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.”
- 14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.
- 15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.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.”
- 16 .
- 17 예수님께서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,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.
- 1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너희도 그토록 깨달지 못하느냐?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?

- 19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.”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.
- 20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. “사람에게서 나오는 것,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.
- 21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, 불륜, 도둑질, 살인,
- 22 간음, 탐욕, 악의, 사기, 방탕, 시기, 증상, 교만, 어리석음이 나온다.
- 23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.”

마태오 복음서 15,1-20 해설 참조.

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(마태 15,21-28)

- 24 예수님께서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.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,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.
- 25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,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.
- 26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,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 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.
- 27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, “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.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.” 하고 말씀하셨다.
- 28 그러자 그 여자가, “주님,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” 하고 응답하였다.
- 29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“네가 그렇게 말하니, 가 보아라.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.”
- 30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,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.

1) 마태오 복음서 15,21-28 해설 참조.

- 2) 신앙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. 겸손한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. 주님께서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시고, 오직 겸손한 자의 간절한 기도만을 들어주신다.

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

- 31 예수님께서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,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.
-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,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.
-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,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

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.

34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, 그에게 “에파타!” 곧 “열려라!” 하고 말씀하셨다.

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.

36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.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.

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. “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.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.”¹⁾

1)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,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널리 알린다. 곧 알린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.

2) 사람들의 놀라운 ‘합창’은,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업적에 대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예고하는 것이다.²⁾

1) 이사 35.5-6 :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.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.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.

2) 주석 성경, 마르코 복음서, 85쪽, 각주 28 참조.